

# 딥택트(Deeptact) 선교상담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질적 연구

최은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교상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현장 선교상담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진행했고 선교상담의 역할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의 역할모형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첫 번째 인식적 측면으로 선교상담의 의미적 체계를 정립, 선교사 집단의 환경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요구적 측면으로 상담가의 역량을 높이고 선교상담 발전의 필요 충분조건을 정리하고 본부차원의 지원 필요와 비대면 상담의 촉진적 환경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통합적인 측면으로 멤버케어와의 협력의 내용을 정리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선교상담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상담환경의 내구성 증진과 거버넌스의 실행, 상담가들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준비사항에 관한 역할들이다.

역할모형을 통해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상담환경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내담자를 최대한 이해하는 노력, 상담가의 전문성, 슈퍼비전 시스템의 필요, 상담가 자신의 자기분석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거버넌스의 실행 측면에서는 전문 상담선교사 파송, 선교상담연구, 선교상담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상담비용 지원구조에 대해 논의했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사항으로 비대면상담의 이해가 필요하고 상담가들의 인식변화와 IT기술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선교상담, 선교상담가, 멤버케어, 거버넌스, 비대면상담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8일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사

## I. 여는 글

2015년 KRIM(한국선교연구원)에서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당시 책임연구를 진행한 문상철 원장은 선교상담가들을 향하여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란 표현을 썼다(문상철 외, 2015). 이 의미는 선교상담가들의 정체성과 역할의 정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선교상담가들은 누구이며 왜 존재하며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연구의 방향성이요 핵심 주제다.

이번 연구의 기획은 연구주제 “멤버케어 중에서 선교상담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멤버케어의 역할은 멤버케어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주어지는 것이기에 지금의 현주소를 알고 그 안에서 선교상담의 정체성과 역할을 고민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장 케어 담당자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해오던 필요들을 정리하면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국내, 해외 선교단체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상담(교육) 전공자 멤버케어 사역자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객관적,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순서는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정리했고, 심층인터뷰 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선교상담의 역할모형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논의되어야 할 큰 주제들 중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 II. 펴는 글

###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 1) 딥택트 (Deeptact)

딥택트(Deep + Contact)의 분명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대략의 정의는 만남이 소홀해지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필요한 시대에 비효율적인 것은 제거하고 효율성의 결합에서 오는 상승효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연구자가 이 연구의 제목으로 딥택트 선교상담'(Deeptact Missional Counseling)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한 이유는 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자 함이다. 원래 상담학은 대면 상담을 시작으로 산업의 발달과 IT의 영향으로 전화, 채팅, 화상상담 등 비대면 상담의 영역도 함께 발전해왔다. 최근은 뉴노멀 시대로 비대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그동안의 거품 같았던 인간관계를 정리하려는 보다 본질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을 격려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상담에서 오는 효과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정의한 딥택트의 정의이다.

#### 2) 선교상담 (Missional Counseling)

그동안은 선교상담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선교사 상담 혹은 선교사를 상담하는 심리상담의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내린 선교(적)상담의 정의는 선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족, 사역, 환경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 자아가 선교적 상담가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싸이클을 함께 경험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선교적 의미로 볼 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케어사역이 통합적인 선교의 과정에 포함되어진다는 관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멤버케어 중에서 상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주제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와 관련 그동안의 한국선교 멤버케어 및 상담선교 선행연구 대략의 흐름을 주제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Kelly O' Donnell가 2002년 *Doing Member Care Well—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를 발간하고 이 책이 2004년 국내에 『선교사 멤버케어』로 발간된 것이 한국멤버케어 기반의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멤버케어 안에서 선교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문상철, 2009; 김두중, 2010; 이정배, 2014), 타문화권에서의 기독교상담에 관한 연구(안경승, 2005), 멤버케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에 관한 연구(홍기영, 2007; 김석원, 2008; 이현상, 2009),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GMCN) 사역소개(도문갑, 2008)를 통해 멤버케어의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었다. 그리고는 선교사의 탈진과 회복 연구(송재홍, 2019; 이호선, 2020; 홍석희, 2021; Kyong Jin Cho, 2017)), 멤버케어 관점에서 본 선교훈련에 관한 연구(변진석, 2009), 멤버케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적한 연구(곽여경, 2014), 선교사와 단체의 멤버케어 연구(조을희, 2016)를 통해 선교사들과 멤버케어의 관계가 심화되었다. 특별히 선교사상담의 현황 및 상담추구 의도모형의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이은하, 2013)은 선교상담의 역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논문이었고 이후 행정적 관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김동화, 2011; 최형근, 2011)와 멤버케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문상철 외, 2015; 김종성,

2017)들은 현재 멤버케어의 진단 및 앞으로의 멤버케어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 2016년에는 Laura M. Gardner의 *Healthy, Resilient, and Effective in Cross Cultural Ministry – A Comprehensive Member Care Plan*을 백인숙과 송헌복의 번역으로 국내에는 『선교사 멤버케어 핸드북』으로 발간되면서 멤버케어의 실질적 가이드가 제공되었다. 2018년에는 멤버케어의 실제로서 디브리핑 상담 연구 박사학위논문(유희주, 2018)을 통해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디브리핑 상담의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이후 선교 디브리핑은 수년 사이 멤버케어의 영역에서 많은 발전이 이어오고 있다.

### 3. 선교상담의 정체성

O'Donnell(2004)은 멤버케어는 단순히 한 단체나 교회의 사역이 아닌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돌봄을 마련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이다. 라고 정의했다. 그러던 중 몸의 아픈 부분이 드러나고 특별히 스페셜 케어의 영역이 부각되기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가들의 사역이 곧 멤버케어와 동의어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한국선교 초창기 미국 멤버케어 모임에 참석했던 참여자8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 심리상담이 보편화 되어있고 서양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거의 상담 전공자들이었다고 보고했다. 그 이후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상담학 공부를 시작했고 멤버케어 사역의 초기 주된 역할들을 해왔으며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담은 멤버케어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멤버케어가 상담 자체일 수는 없다. 즉 멤버케어는 상담을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다. 위에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선교상담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미흡했기 때문에 혼

동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예측된다. 멤버케어가 돌봄을 제공하는 전체적 개념이라면 상담은 돌봄을 제공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한 가지 방법에 쓰이는 도구이다. 상담이 아니어도 선교사가 회복되어지는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선교사들이 위로를 얻고 실시간 중보기도로 다시금 힘을 얻기도 한다. 물론 상담학적 소통 기술은 선교사의 면접부터 시작하여 여러 소통에서 활용하는 보다 보편적 이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때로는 집중상담이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다. 이것은 스페셜 케어에 해당하며 여기에 선교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이 존재한다.

그럼 선교상담가는 멤버케어 사역자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멤버케어 사역자이고 누가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역 형태는 현장에 있는 전임 선교사 상담가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가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직업이 있으면서 의뢰가 있을 때에만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즉 일반 상담가와 구별되어야 할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인간이해로 내담자를 보고 있는가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교상담가로의 부르심이 있는가, 또 이들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중요한 자격일 것이다.

#### 4.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한국선교 멤버케어 중 선교상담의 역할에 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연구 참여자를 국내외 선교단체 소속 멤버케어 사역자(10년이상), 상담(교육) 전공자로 다음과 같이 목적표집 하였다.

(표 1)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성별	여	여	여	여	남	여	여	여	여	여
나이	59	57	57	49	66	62	47	65	56	65

## 2) 반구조화된 주요면담내용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였고 멤버케어 사역자 2인과 기독교상담학 교수 1인의 검증을 받아 수정하고 완성하였다. 주요면담내용은 현 한국선교의 멤버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및 멤버케어 사역자로서 힘든 점, 멤버케어와 상담의 관계, 선교상담과 일반상담의 차이, 선교상담 에피소드, 선교상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선교상담이 성장해가려면 필요한 것, 비대면 상담의 전망과 상담자가 준비해야 할 것, 선교상담을 준비하는 예비상담가들에게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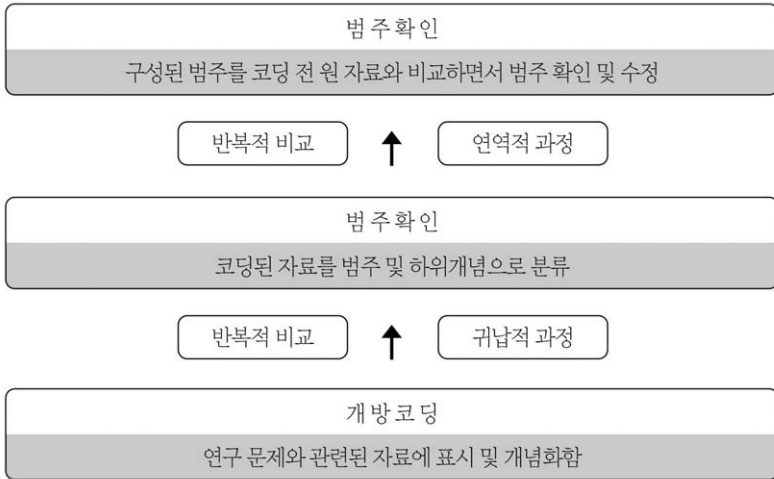
## 3) 자료수집

심층 면담에 관한 안내문과 일정은 전화와 카톡으로 보내어 약속 시간을 정하였고 면담은 Zoom 화상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각 1회로 진행했고 소요시간은 40분~110분 정도였다. 면담내용은 사전에 준비하여 질문하였고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바꾸거나 보완하였으며 면담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은 모두 녹화하였다. 주요 용어나 핵심 사항은 면담 과정 중 메모를 하였다. 녹화 후 24시간 이내 현장의 느낌과 내용의 전달을 위해 연구자가 바로 필사하여 기록하였고 두 번 확인하여 불일치된 내용이 없도록 확인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 분석방법으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부호화하

고 유형화하는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따라 질적분석했고 특별히 연구자 판단의 정확도를 위한 방법으로 (그림1)의 절차를 따라 분석하였다.



(그림 1) 연속적 비교법의 절차

## 5.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현장의 멤버케어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상담의 포괄적인 역할에 관한 생각과 현재 멤버케어의 상황에 대한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표2>와 같이 3개의 대범주와 7개의 중간 범주, 39개의 하위범주와 145개의 개념으로 요약되었다.



〈표2〉 선교상담의 역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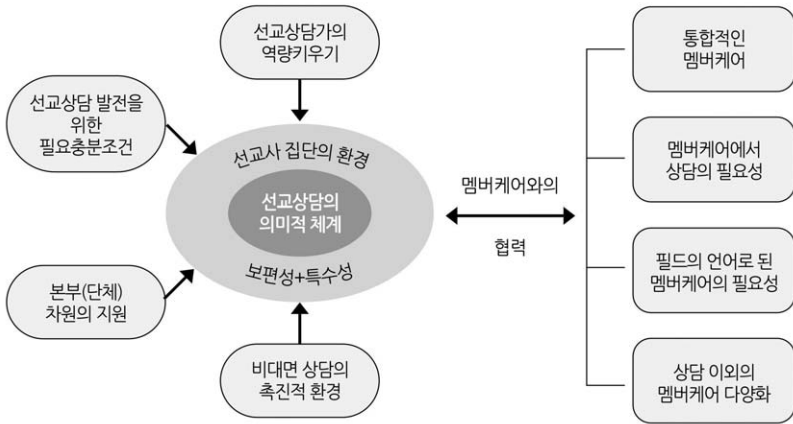
대범주	중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식적 측면	선교상담의 의미적 체계	선교상담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가 질적으로 회복하는 것</li> <li>• 소진, 탈진의 회복</li> <li>• 심리적인 사이클을 회복하는 것</li> <li>• 멤버들이 사역을 지속하도록 돌봄</li> <li>• 부르심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면에서 돕는 것</li> <li>• 선교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li> <li>• 상담자-피상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li> </ul>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성을 선교사에게 제공하는 것</li> <li>• 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li> </ul>
		기본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케어에서 동료상담까지 스펙트럼이 넓음</li> <li>• 사역적인 접근(단순한 돌봄)은 상담이 아님</li> <li>•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상담한 만큼 피차 유익함</li> <li>• 같은 단체 내에서의 선교상담은 멤버간의 소통이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거리가 가까움</li> <li>• 집단상담의 경험은 유익함</li> </ul>
		기독교상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보기도를 상담의 셋팅으로 중요하게 생각함</li> <li>• 상담의 목표를 성경적으로 잡아야 함</li> <li>•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함</li> </ul>
		기술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성이 필요함</li> <li>• 상담의 매칭이 중요함</li> <li>• 대체로 단기상담 구조화를 해야 함</li> <li>• 주로 해결중심상담을 하고 있음</li> <li>• 분석이나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편임</li> </ul>
		체계적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은 높아졌지만 구조화되는 것은 미흡함</li> <li>• 문제 발생시 의료적 시스템보다는 심리상담/디브리핑의 인식 부족함</li> <li>• 본부와의 관계감등은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부와의 관계 중요함</li> <li>• 한국본부는 질서적 위계가 중요해서 멤버케어 실행단계에서 어려움이 존재함</li> <li>• 멤버케어 사역자간의 시너지가 필요함</li> </ul>
		의존경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전문가의 의존도가 높아짐</li> <li>• 유약하거나 의존적인 선교사는 상담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li> </ul>

인식적 측면	선교상담의 의미적 체계	조심해야 할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검사 해석이 낙인이 될 수 있음</li> <li>• 상담이후 연계성으로 컨트롤하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선교사와 상담가가 이중 관계일 때 조심 필요함</li> <li>• 상담가가 선교사가 아닐 때의 조심스러움</li> </ul>
		반감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상담보다 프로그램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이 필요함</li> <li>• 그동안의 단체 내의 상담에 대해 선교사에게 좋은 피드백 받지 못함</li> <li>• 상담의 반감사례가 있었음</li> <li>• 선교상담의 벽을 이해해야 함 (예를 들어 한국 남자 목회자들)</li> </ul>
		집중해야 할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관계’임</li> <li>•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케어해야 함</li> <li>• Pre-필드에서 이미 선교상담은 집중해야 함</li> <li>• 예방 교육은 지속적이어야 효과가 있음</li> <li>• 대인관계훈련, 위기대응훈련이 선교프로그램 안에 구조화되어야 함</li> <li>• 은퇴선교사에 대한 케어, 대안, 롤모델 제시되어야 함</li> </ul>
	선교사 집단의 환경	선교사의 건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함</li> <li>• 선교사의 건강함은 선교지가 건강하다는 것과 연결되기에 중요함</li> <li>• 나의 문화적/양육적 배경이 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건강해야 함</li> </ul>
		선교사 집단의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지는 복잡한 일이 얽혀있음</li> <li>• 선교사 집단은 고려할 사항이 많음</li> <li>• 국내가 아닌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기에 더 다양함</li> </ul>
		선교사 집단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는 민감성/예민성이 요구되는 집단임</li> <li>• 한국 선교사들의 체면문화가 걸림돌이 됨</li> <li>• 선교사 집단과는 치료적 동맹관계 갖기 어려움</li> </ul>
요구적 측면	선교 상담가의 역량 높이기	선교상담가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브리핑이 아니라면 선교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짐</li> <li>• 심리검사 해석상담가는 자격제한 엄격해야 함</li> <li>• 주님이 맡기신 선교사들을 위해 죽도록 공부해야 함</li> <li>• 임상이 풍부하고 실력이 갖추어져야 함</li> <li>• 본인의 전문영역 상담가여야 함</li> <li>• 멤버케어 전체에 상담 전문성을 반영해야 함</li> <li>• 전문인 상담선교사가 필요함</li> </ul>

요 구 적 축 면	선교 상담가의 역량 높이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이 맡기셨으니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li> <li>•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어야 함</li> <li>• 사랑으로 상담해야 함</li> <li>• 영혼을 사랑하는 상담가여야 함</li> <li>•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함</li> </ul>
		인격훈련이 먼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선교적인 사람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확인하고 인격이 준비되어야 함</li> <li>• 상담가의 인격이 상담에 영향을 미침</li> <li>• 상담가가 먼저 꾸준히 상담을 받고 먼저 치료되어야 함</li> </ul>
		선교지 경험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지를 경험해야 이론과 다른점을 파악할 수 있음</li> <li>• 선교지 경험은 필수임</li> <li>• 선교지와 선교사들과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함</li> <li>• 선교사를 상담한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함</li> </ul>
		선교지의 특수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의 특수성이 전제되어야 함</li> <li>• 선교사의 보편성/특수성을 이해해야 함</li> <li>• 선교지의 상황이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함</li> </ul>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도 “죄인이고 인간이다”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li> <li>• 기독교 세계관의 통합적인 인간이해 필요함</li> <li>• 사람이 전인적으로 이해되어야 함</li> <li>• 다양한 인간이해가 가능해야 함</li> </ul>
	선교상담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	선교사의 Self Care를 위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사들이 케어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극복해가야 함</li> <li>• 선교사는 self care의 기준이 높아야 함</li> <li>• 상담 이전에 self care, mutual care가 더 중요함</li> <li>• 선교사는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분별해야 함</li> <li>• 선교사는 건강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함</li> <li>• 선교사 자신도 멤버케어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함</li> <li>• 선교사의 자기인식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함</li> </ul>
		상담가의 교육과 케어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비전이 필요함</li> <li>• 슈퍼비전(코칭)으로 상담가의 탈진을 막을 수 있음</li> <li>• 각 단체 리더와 담당자의 교육과 케어가 필요함</li> </ul>
		현장에서 상담가의 모호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는 멤버케어의 영역이 모호함</li> <li>• 현장에서 상담선교사의 인식, 입장이 애매함</li> </ul>

요구적 측면	선교상담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	on 필드 상담선교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 심리상담 사역자가 필요함</li> <li>• 현장에 즉각 투입케어가 필요함</li> <li>• 상담전문선교사 파송해야 함</li> </ul>
		선교상담의 롤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상담가들이 필드를 넓혀가야 함</li> <li>• 선교상담의 성공적 롤모델이 필요함</li> <li>• 젊은 상담가가 선교에 헌신하고 현지어까지 한다면 복음전도에 더욱 효과적임</li> <li>• 상담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음</li> </ul>
		전문상담가 배출을 위한 훈련기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상담의 체계적인 훈련기관이 필요함</li> <li>• 선교사의 특수성을 위한 훈련 필요함</li> <li>• 현장과 연결된 커리큘럼, 임상을 갖춘 훈련기관이 필요함</li> <li>• 선교상담 전문가 배출해야 함</li> </ul>
		사례연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가 정리되어야 함</li> <li>• 좋은 사례연구 필요함</li> <li>• 임상사례연구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음</li> </ul>
		전문상담사의 대우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상담가의 적당한 대우가 필요함</li> <li>• 상담가의 처우개선 필요함</li> <li>• 상담가를 자원봉사자로 본다면 수요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질것</li> <li>• 상담가의 경제적 안정성 필요함</li> </ul>
	본부(단체) 차원의 지원	상담인력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교단체 멤버케어 인력 부족함</li> <li>• 선교상담의 자원의 부족함</li> </ul>
		멤버케어 행정+상담 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케어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li> <li>• 멤버케어와 인사행정 사이의 갈등이 힘들</li> </ul>
		상담을 위한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케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li> <li>• 선교상담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지원임</li> </ul>
		교회의 인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송교회의 멤버케어 인식이 필요함</li> <li>• 선교상담은 교회가 참여해야 원활해질 수 있는 사역임</li> <li>• 한국교회의 인식을 위해 선교단체의 노력 필요함</li> </ul>
		본부대표(선교 지도자들)의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대표의 인식이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이 필수적임</li> <li>• 선교지도자들이 선교상담의 비밀유지 중요함</li> </ul>

요구적 추면	비대면 상담의 촉진적 환경	비대면 상담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상담의 효과성이 더 높아질 것임</li> <li>• 비대면 상담에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li> <li>• 비대면 상담기회가 더 많아짐</li> <li>• 중 상담은 MK위기상담에 효과적임</li> <li>• 비대면 상담 중 전화상담은 더 익명성이 존중되기에 유지해야 함</li> <li>• 상담은 비대면과 대면을 둘 다 해야 효과적임</li> <li>• 비대면과 대면이 서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다면 효과적인 상담방법임</li> </ul>
		비대면 상담의 '비언어'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상담에서는 정보의 한계가 있음</li> <li>• 비대면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표정' 임</li> <li>• 비언어/미묘한 정보를 알아차림이 중요함</li> <li>• 비언어를 언어화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침묵 다루기의 기술이 필요함</li> <li>• 내담자의 통제성(차단)을 대비해야 함</li> </ul>
		비대면 상담을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상담의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함</li> <li>• 비대면 상담자의 태도변화 필요</li> <li>• 온라인 상담의 도구 방식이 익숙해져야 함</li> <li>• 비대면 상담에는 창의력 필요함대면 상담 홍보도 필요함</li> </ul>
통합적 추면	멤버케어 와의 협력	통합적인 멤버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 시각의 멤버케어 필요함</li> <li>• 인간자체의 문제보다는 선교와 연결되어진 통합적인 멤버케어 필요함</li> </ul>
		멤버케어에서 상담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멤버케어에 상담이 협력해야 함</li> <li>• 선교상담이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음</li> <li>• 선교의 시작, 과도도 상담이 관여되어짐</li> <li>• 상담이 없다면 선교발전과 선교사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li> <li>• 상담이 없다면 규정에만 치우칠 수 있기에 필요함</li> </ul>
		필드의 언어로 된 멤버케어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들의 언어가 아닌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되어야 함</li> <li>• 본부와 필드의 선교사와의 필요에 대한 차이가 큼</li> <li>• 선교현장에서는 실제적 멤버케어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낌</li> <li>• 필드의 필요에 의해 케어모델이 개발되어야 함</li> </ul>
		상담 이외에도 멤버케어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이외에도 네트워크, 교회, 후원자들의 돌봄으로도 선교사가 회복될 수 있음</li> <li>• 멤버케어가 상담 이외의 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함</li> <li>• 기독교상담 전공 이외의 전공자들도 멤버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함</li> </ul>



(그림2) 연구결과 모형

## 1) 선교상담의 역할에 대한 인식적 측면

### (1) 선교상담의 의미적 체계

이 범주는 멤버케어 사역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선교상담’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현재적 의미들이 정리되었다. 선교상담의 목표는 선교사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역할은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상담의 영역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어떤 형태이든 상담의 경험은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고 기독교상담적 요소인 중보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일반상담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꼽았다. 다른 상담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으로 분석이나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단기해결중심상담의 구조를 사용하고 아직 여러 면에서 선교상담은 체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내담자가 상담자체에 의존할 수 있는 경향성을 지적했고 특별히 심리검사해석의 낙인이나 상담 이후 이중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들을 견지했다. 생각보다 반감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Pre-필드에서 은퇴까지의 발달주기별 멤버케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참여자들은 강조하였다.

## (2) 선교사 집단의 환경

이 범주는 멤버케어 사역자들이 그동안 만났던 선교사들의 집단을 분석한 범주이다. 선교사의 건강과 사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상담가들이 보는 선교사 집단의 특수성은 민감성과 예민성이 요구되는 집단으로 보고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복잡함으로 얽혀있는 선교사사회를 선교상담의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2) 선교상담의 역할에 대한 요구적 측면

### (1) 선교상담가의 역량 높이기

선교상담의 역할에서 선교상담가의 중요성은 당연할 것이다.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측면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 전문성을 꼽았다. 임상이 풍부하고 실력을 갖춘 전문상담가, 전문상담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선교상담가들은 본인이 선교상담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인격훈련이 먼저 되어야 하며 상담가가 먼저 자기문제가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의 모든 참여자가 이야기 한 내용으로 선교지 경험의 필요를 언급했다. 위의 인식적 측면에서 보았듯이 선교사집단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넘어선 선교지의 실제적 경험이 있어야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특수성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인간임을 이해하고 예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인간이해가 상담가에게 필요하다는 견해들이었다.

### (2) 선교상담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이 범주는 선교상담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의 범주들이다. 먼

저는 선교사 자신의 self care 중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케어가 늘 있을 수 없는 구조에서는 스스로 케어해야 하며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mutual care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고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함이 선교지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선교지와 사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 면에서 선교사로서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선교상담가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슈퍼비전이 필요하고 이들의 케어와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느낀다고 했다. 멤버케어 사역자들 중 선교지에 계신 참여자들은 현장에서는 실제로 멤버케어의 영역이 모호하며 상담선교사를 인식함에 애매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연결하여 멤버케어는 문제가 있을 때 한국으로 소환하여 케어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지만 필드 자체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전임상담선교사나 사역자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런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관건이고 현장과 연결된 체계적인 훈련기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연구소 차원에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선교상담가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인식개선 및 대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3) 본부(단체) 차원의 지원

이 범주는 선교단체 본부(교회를 포함)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요구적 측면의 범주이다. 본부 내에서 인사와 행정을 겸했을 때 케어상담가로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분리했으면 하지만 인력여건이 여의치 않은 면이 안타깝다고 보고했다. 상담은 심리검사비용이나 외부 상담 기관일 때는 상담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오롯이 선교사가 충당하기에는 버거워서 상담을 원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생각도 안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했다. 파송교회 또한 멤버케어에 대한 필요함을 느



긴다면 교회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지원하는 구조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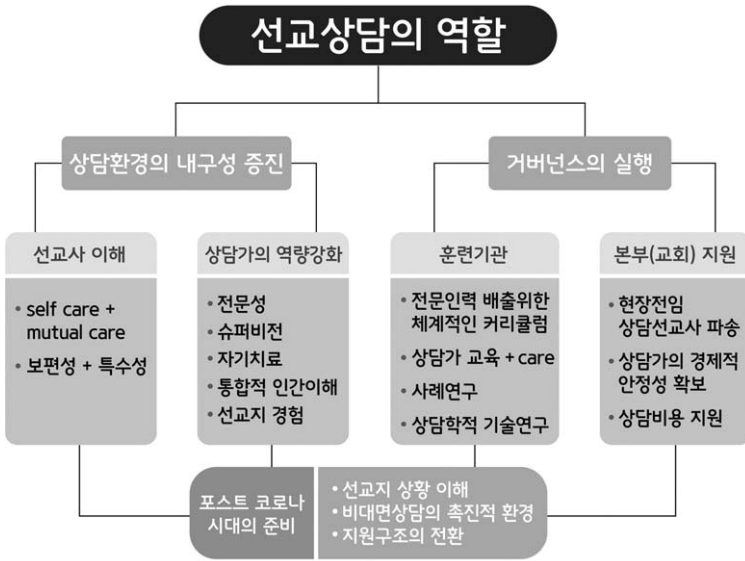
#### (4) 비대면 상담의 촉진적 환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범주는 비대면 상담에 관한 촉진적 환경에 대한 요구적 측면의 범주이다. 비대면 상담의 활성화로 상담의 기회가 더 많아지고 MK들이나 위기상담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대면과 대면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비대면상담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대면상담에서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비언어의 한계일 것이다. 표정을 포함한 침묵 등 비언어를 언어화하고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상담가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앞으로 비대면상담 스킬 및 기술적 노하우들이 잘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 3) 선교상담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측면

#### (1) 멤버케어와의 협력

마지막으로 선교상담과 멤버케어와의 협력적 측면의 범주이다. 전체적인 시각의 통합적인 멤버케어가 필요하고 멤버케어에서 상담의 필요성은 중요한 영역이고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며 필드의 언어로 된 멤버케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 이외에도 멤버케어를 위한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멤버케어 안에 선교상담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림3) 선교상담의 역할모형

## 6. 종합적 논의

### 1) 상담환경의 내구성 증진

인터뷰 참여자 10명 모두 언급한 내용 중 하나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특수성이다. 그래서 이은하(2003)의 연구에서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자의 선교관련 특성으로 응답자의 78.3%가 선교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원했다. 이는 타문화권이면서 선교지만의 특수성을 이해해주길 원하는 마음일 것이다. 참여자2가 만난 선교사는 “상담자에게 나의 선교지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게 너무 힘들다”라는 경험을 전해주었다, 이처럼 선교상담가는 내담자의 이해와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선교지 경험이 꼭 있는 상담자만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혹시 모두 그럴 수 없다면 내담자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상담가의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선교상담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필요로 10명 중 9명이 상담가의 전문성을 꼽았다. 주은성, Bae, Orlinsky(2003)의 심리상담사들의 성장을 위한 국제합동연구(International Study of Development of Psychotherapist: ISDP)에서 한국 상담가들이 서구 상담가들에 비해 상담경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상담가의 전문성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당시가 한국 상담학의 역사가 짧은 이유일 수 있지만, 이것이 상담가의 전문성과의 관계는 선교상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일 수 있다. 선교지의 경험이 있고 선교사 상담의 경력이 많은 선교상담가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돕는 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래에 설명하고자 하는 슈퍼비전과도 연결된다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2009)의 연구에서는 상담가들의 어려움 극복에 관하여 초심상담가는 자신의 상담관련 주제에 관해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상담전문가들은 상담 이외의 개인 생활에서 오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참여자3도 본인이 멤버케어의 초기 사역자 시절 슈퍼비전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잘 극복했고 단체 내의 선교사의 어려움을 곁에서 잘 도울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주었다. 10명의 참여자 중 4명이 상담자의 슈퍼비전 시스템의 필요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상담자의 탈진을 예방하고 전문성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Wefel(2002), Kottler(2006), 김수지(2009)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분석의 중요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며 자신의 성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참여자들 10명 중 6명이 보고한 내용으로 상담자의 자기인식과 꾸준한 상담 및 자기치료의 시간을 갖은 이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보고했다. 위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특수성의 이해 (내담자의

이해)와 함께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발달적, 성격적, 전인적 이해 (상담자의 이해)가 이루어질 때 선교상담의 효과성을 가장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거버넌스의 실행

선교상담에 관한 많은 필요와 요구를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가?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행이 일부의 답이다. 이는 필요를 인식하고 정책을 세우고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위의 많은 멤버케어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개혁방안으로 제시되는 영역이 본부의 변화이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선교상담에 관하여 거버넌스에게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선교상담가 훈련기관(연구소)의 필요와 본부차원에서의 상담선교사 파송이다.

선교상담가 훈련기관 및 제반 연구를 위한 연구소는 이제 학교와 선교단체가 함께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필드와 연결되어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훈련기관에서 한국 및 해외에서 수련한 상담가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실력있는 상담가들이 더욱 견고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필드의 필요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사례들을 선교학적, 상담학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내용연구, 기술연구 등으로 인해 어떻게 선교상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 연구가 축적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여자 5, 6은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멤버케어 선교상담 사역자로서 현장에서의 위치가 애매함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직 선교지에서는 멤버케어 사역자로서의 파송개념의 인식이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부 차원에서 상담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현지에 작은 본부가 있고 전임 상담선교사가 거주하면서 위기상담과 필요한 멤버케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구조가 고려되어진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간단한 정책적 결정은 아니다. 이에 대한 상담선교사 수급의 현실적인 한계로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외 4인의 연구(2015)에서는 순회멤버케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가능한 단계부터 개선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본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재정적인 영역으로, 선교상담가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이다. 참여자 4는 선교사 상담이 개인적으로 의뢰되어질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선교사님의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으면 무료상담도 진행한다라고 보고했다. 참여자 7은 상담자를 봉사직으로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이 헌신하기 어렵다고 보고, 봉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상담가로서의 대우도 필요하다고 하며 이것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해주었다. 또한 선교사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이은하(2013)의 연구에서 보면 참여 응답자 85.5%가 상담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본부차원에서 상담비용 지원구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미 몇 선교단체에서는 비용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식 및 저변확대가 필요하겠다.

###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준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한국교회에도 선교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선교상담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내담자들의 선교지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교지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철수 및 이동, 또는 사역의 많은 변화가 있으며 재정, MK들의 교육문제 등 코로나로 전 세계가 겪는 문제, 고통 또한 함께 겪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다. 학교수업, 기업, 예

배, 소모임, 개인적인 만남도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온라인 예배, 화상심방, 순환등교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미 시작은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에서 이루어졌고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치료들이 이것들이다. 상담에서도 전화나 채팅 이메일상담이 있어왔고 요즘은 화상상담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다면 비대면 상담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비대면의 만남 특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의 제한성이다. 신체는 만날 수 없고 시각과 청각만 사용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후각과 청각은 내가 있는 곳의 정보일 뿐이다. 정보시각의 이원화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라포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비언어 정보의 한계는 상담장면에서는 많은 제한성을 갖게 된다. 박진희, 오경미(2018), Egan(2002), Berns(2001)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봐도 비언어적 행동은 내담자의 내면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고 서로 간의 대화를 조절하며 정서를 전달하고 언어적 메시지를 수정하고 언어와 비언어의 불일치는 내담자의 심리역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비교적 통제하는 언어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비언어가 더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대면에서는 비언어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최근 화상상담에서는 언어를 인지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비언어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대면 상담에 관하여 앞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면 상담의 틀에 비대면 기술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겠고 더불어 IT적 기술 사용능력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상담가들이 준비하고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반신환, 2020).

### III. 닫는 글

선교상담이란 무엇이며 선교상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아이디어의 기반은 서양의 선진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 선교의 선교상담은 한국형 선교상담으로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내리면서 이후 외부의 모델을 차용, 시도하고 연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선교상담은 그동안 어떠한가? 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론 중심 및 탁상 공론이 안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의 그동안 그들의 경험과 생각 안에 이미 개선에 필요한 방향과 내용 및 정체성을 위한 토대가 존재한다고 선 판단되어 인터뷰를 연구 기획하게 되었다.

인터뷰 내내 들었던 생각은 멤버케어에 관한 논문마다 쓰여져 있던 “보내는 선교에 치중했던 한국선교가 이제는 멤버케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구는 이제는 더이상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짧은 시간 동안 한국선교의 멤버케어 사역은 한국의 산업 발전의 속도와 비례하게도 급성장해왔고 그동안 멤버케어를 통해 회복되어진 선교사들의 선교현장에 다시금 활력을 주고, 무너진 선교사 가정을 세우고, 결국은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그동안 한국선교의 멤버케어 역사의 증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의 희생과 땀과 열정, 수고를 느낄 수 있었고 이분들에게 가슴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물론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구조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선교상담의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위에 제시되어진 선교상담의 역할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이루어가시리라 믿고 계속 수정해가고 업그레이드해 갈 수 있는 연구들과 사역

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우리의 여러 이유들로 케어사역이 멈춘다고 해도 우리와는 별개로 주님은 케어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곳에 주님이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교상담은 그렇다.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선교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주님과 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해결해간다가거나 *mutual care*를 통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다면 상담의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된다는 걸 아는데 자신의 연약한 어떠한 때문에 그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용기를 내었고 나무 밑으로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아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에게 이 모든 주도성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겸손히 그분의 케어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글을 달는다.



【 참고문헌 】

- 곽여경 (2014).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한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현대선교**, 17, 127-149.
- 김동화 (2011). 행정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토털케어. **선교와 신학**, 28, 59-84.
- 김두중 (2010).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 하나님의 선교(Misio Dei)의 통전적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원 (2008). 제 3문화 아이들(TCK)의 정체성 분석과 교육적 대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 (2009).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성 (2017). 선교사 멤버케어의 현재와 개혁 방향. **선교와 신학**, 41, 79-115.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초심상담자와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도문갑 (2008).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GMCN) 사역소개. **선교연구**, 60, 17-21.
- 문상철 (2009). 한국 기독교 선교운동의 동향과 과제. 한국 선교 핸드북 2007-2008 CD자료.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 문상철, 신경섭, 유희주, 조난숙 (2015).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방안**. 서울: 한국선교 연구원.
- 박진희, 이경미 (2018). 상담에서 내현적 비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 10(2), 1-28.
- 반신환 (2020). 비대면 상담에서 촉진 환경의 조성 방법. **대학과 선교**, 46, 239-262.
- 변진석 (2009). 멤버케어 관점으로 본 선교훈련. **선교연구**, 62, 2-8.
- 손숙영 (2018). '선교상담' 과 '증인 레질리언스(resilience)' 사이의 상보관계. **복음과 선교**, 42, 107-138.
- 송재홍 (2019). 탈진을 통해 보는 선교사 케어. **활천**, 788(7), 68-71.
- 안경승 (2005). 타문화 선교현장에서의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5, 137-159.
- 유희주 (2018). 영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선교사 집단 심리 디브리핑 프로그램

- 개발: 기독교적 이야기치료 관점에서.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하 (2013). 선교사 상담의 현황 및 상담추구 의도모형.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배 (2014). 선교사 멤버케어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상 (2009). 선교사 케어(Pastoral Total Care)의 필요성과 전략. *고려신학*, 20, 89-122.
- 이호선 (2020). 해외선교사 탈진과 회복과정.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2), 215-242.
- 조을희 (2016). 선교사와 단체의 멤버케어. *선교연구*, 75, 32-38.
- 주은선, Bae, S. H., & Orlinsky, D. E. (2003). 한국심리치료자들의 특성과 실무현황 - 심리치료자들의 성장을 위한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23-439.
- 최형근 (2011).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와 신학*, 28, 85-110.
- 홍기영 (2007). 선교사가 중도에 탈락하는 원인과 대안. *지성과 창조*, 10, 193-218.
- 홍석희 (2021). 타문화 선교사들의 정서적 탈진과 대처방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Herbert J. Freudenberger와 Christina Maslac의 이론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1, 202-241.
- Berns, C. (2001). *Basic skill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Belmont, CA: Wadsworth.
- Cho, Kyong Jin (2017). *Understanding burnout recovery among native-born Korean missionaries*. *현대선교*, 17, 105-125.
- Egan, G. (2002). *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nd opportunity-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ardner, L. M. (2016). *선교사 멤버케어 핸드북* (백인숙, 송헌복 역, *Healthy, resilient, and effective in cross cultural ministry*). 서울: 아바서원.(원전 2014 출판).
- Kottler, J. A. (2005). *The client who changed me: Stories of therapist personal transformation*. New York: Reutledge.
- O' Donnell, Kelly (2002).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O' Donnell, Kelly (2004).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송복진, 엄은정, 이순임, 조은혜 역,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원전 2002 출판).

Wefel, E. R. (2002).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tandards, research, and emerging issues* (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Abstract 】

## A Qualitative Study of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Deepact Missional Counseling

Choi, Eunkyung\*

What is missional counseling and what is the role of missional counseling? It started with this question.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with field missional counselors, and a role model was presented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role of missional counseling. As the first cognitive aspect of the study, the semantic system of missional counseling was established, and the environment of the missionary group was examined. Second, as a demanding aspect, the capacity of missional counselors was raised,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ission counseling were arranged, and the need for support at the headquarters (group) level and a facilitating environment for non-face-to-face counseling were presented. In the third integrated aspect, the contents of cooperation with member care, which is a larger concept, are summariz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searcher presented a role model for missional counseling. It is the role of enhancing the durability of the counseling environment, implementing governance, and preparing counselors in the post-corona era.

The part that the researcher comprehensively discussed through the role model emphasized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mission counsel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lient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unselor, the practical aspect of governance, the understanding and IT skills to prepare for the post-corona era.

**Key words:** missional counseling, missional counselor, member care,  
governance, non-face-to-face counseling

\*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Foreign Mission Board) / Missionary